

센강에 흠날리는 '파꽃'

서양화가 최 향, 프랑스서 첫 개인전



17~27일 파리 뽁 데자르 갤러리 초청

“파꽃은 연약한 생명의 꽃이자 삶의 일부”

자신의 삶과 작품의 주제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화가에게 어떤 의미일까.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삶,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투영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길 끊임없이 갈망하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서양화가 최향씨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낸 작가다. 불현듯 운명처럼 마주친 파꽃에 마음을 빼앗긴 최씨는 그동안의 모든 작업을 접었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담기 시작했다. 작가는 삶을 그리듯 파꽃을 그렸고, 자신을 투영했다. 그렇게 그린 작품들은 한 권의 자서전처럼 다른 이들에게 비친다.

최씨의 파꽃이 프랑스 파리로 간다. 최씨는 파리 뽁 데자르(PONT DES ARTS·예술의 다리) 갤러리의 초대를 받아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파꽃 여행'을 주제로 프랑스에서의 첫 개인전을 갖는다.

동구 '예술의 거리' 작업실을 벗어난 최씨는 루브르박물관과 프랑스 학사원 사이, 센강을 가로지르는 '예술의 다리' 옆에 있는 이 갤러리에서 모두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화가라면 누구나 파리에서의 전시를 꿈꾸죠. 저도 20여년 전부터 프랑스의 역사, 문화, 정서, 언어를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했어요. 전시가 끝나고 한달 정도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작품 구상도 할 예정입니다. 초기 '꽃은... 바람에 흠날리고...'에서 화사한 이미지와 나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보여줬다면 최근 '파꽃 여행' 연작에서는 성숙한 색감과 안정된 조형미를 보여주

려 애썼습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구도에 변화를 주고 추상성을 더한 것이 특징이죠.”

최씨 작품에서는 어두운 밤 보름달 아래 피어난 파꽃의 향연을 만날 수 있다. 달빛을 받은 파꽃은 온갖 자연의 색을 머금으면서 형형색색으로 피어난다. 탱탱한 줄기와 커다란 꽃은 촛불과 같이 어둠을 밝힌다. 어둠 속에서 몸을 태우며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촛불과 같이 달빛 아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파꽃 정원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향연은 자연스레 한편의 시를 떠올리게 만든다.

미술평론가 윤진섭 호남대 교수는 “이효석의 잘 알려진 표현을 보면, 달빛에 드러난 메밀밭의 흐릿한 광경이 바로 그녀가 그린 달빛의 파발과 오버랩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녀 작품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평면에서 솟아나 있는 형상을 가진 꽃이다. 평평한 캔버스, 줄기와의 상반되게 나이프로 물감을 찍어 올리듯 도드라지게 표현한 꽃의 입체감은 작품에 사실적인 느낌을 녹여내면서 깊이를 더한다. 특히 지난 2011년 자신만의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 내는 '페인팅 나이프' 기법으로 특허를 받기도 했던 작가는 이번 전시를 앞두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붓 대신 손을 사용해 만들어진 파꽃 줄기는 이전 작품과는 또 다른 서정성을 보여준다.

작품에도 큰 변화가 왔다. 정면에서 바라본 꽃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추상적인 느낌을 더했다. 파꽃이 바람에 흠날리듯, 또 작가가 누군가에게 이끌리듯 표현된 이미지들은 이전 작품에서 찾을 수 없었던 모습이다. 긴 시간 동안 그의 캔버스에 담긴 파꽃은 작가의 나이만큼이나 더욱 성숙해졌다.

“10년 전 남도 들녘에서 만난 뿔밭의 감흥을 주던 파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깊은 울림을 캔버스에 녹여내려고 애쓰 세월이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파꽃은 연약한 생명의 꽃이자, 거

대한 순화의 꽃이며, 치열한 삶의 꽃입니다. 어느덧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호남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최씨는 광주는 물론 서울과 부산, 대구, 독일, 일본 등에서 20차례가 넘는 개인전을 열었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파꽃여행'

6개의 별, 시장에 '총총'

대인시장 한평갤러리 24일까지 '별무리'전

별장프로젝트 팀이 운영하는 대인예술시장 한평갤러리에서 오는 24일까지 '별무리'를 주제로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별처럼 톡톡 튀는 개성을 가진 김단비, 김지영, 려운, 정다운, 이재문, 이정기씨 등 6명의 작가가 초대됐다.

김단비씨는 물감이 물에 퍼지는 듯한 이미지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 속 긴장감과 갈등 구조를 이야기한다. 이야기들은 관객의 상상을 통해 또 하나의 세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씨는 광목 위에 글을 쓰듯 수를 새겨, 일상의 이야기들을 늘어 놓고, 려운씨는 하나의 선으로 그린 드로잉 작품을 통해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를 드러낸다.

정다운씨의 자신의 주된 소재인 미미인형을 통해 유년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고, 이재문씨는 옷과 오브제를 통해 다양한 감정과 의미들을 전달한다.

이정기씨는 깨진 거울파편 조각으로 돼지저금통, 나무, 소꿉배, 인물 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대인들의 초상을 비춘다. 문의 062-233-1420.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이정기 작 'Piggybank'

오페라의 초대

호신대,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가을 밤, 오페라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호남신학대는 14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가을, 오페라와 사랑을 말하다' 공연을 갖는다.

지난해 음악학과 설립 25년을 맞았던 호신대는 지금까지 900여 명의 음악가를 배출했다. 올해 공연은 재학생과 동문들이 함께 꾸미는 무대로 오페라 '전화' 전막 공연과 함께 '라 트라비아타' 등 유명 오페라의 명장면을 엮은 갈라 콘서트로 꾸몄다.

메노티의 오페라 '전화' 전막 공연에는 김혜미, 박영숙씨가 출연하며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전진·김민정), '라크메' 중 '꽃의 이중창'(윤은주·김민희·임리라), '나비부인' 중 '벚꽃나무의 지를 흔들어라'(이환희·김사라·김민정),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홍선희·송태왕·김은희·호신대 콘서트 콰이어) 등을 만날 수 있다.

김해진, 김성중, 박은희씨 등 재학생들은 피아노곡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차이코프스키의 '돈 주앙의 세레나데', 가곡 '벚노래' 등을 들려준다.

오페라의 사랑 장면을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보여주는 이번 공연의 연출은 양수연씨가 맡았다. 전석 초대. 티켓 문의 062-650-156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노와 현악 5중주

전남대 교수음악회, 내일 예향홀

피아노협주곡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게 통상적이다. 현악 5중주와 어우러진 협주곡은 어떤 느낌일까. 전남대 피아노연구소(소장 신수경 교수)가 베토벤과 쇼팽의 피아노협주곡 전곡을 현악 5중주와 협연하는 공연을 마련했다. 지역에서 처음 선보이는 형식의 무대다.



신수경 교수

지난 8일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1~3번을 연주한 데 이어 14일(오후 7시30분 전남대 예술대학 예향홀)에는 쇼팽의 피아노협주곡 1번과 2번을 들려준다. 협주곡 1번은 최은영, 김연씨가 연주하며 협주곡 2번은 신수경 교수가 협연한다. 오는 2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연주회에서는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4번과 5번을 최유진, 신영주, 서현일, 이선아씨가 협연한다.

현악 5중주 멤버는 이중만(제1바이올린), 이준성(제2바이올린), 김주영(비올라), 이후성(첼로), 권세룡(더블베이스)씨다.

그동안 전남대 피아노연구소는 2009년 멘델스존 '무언가', 2010년 쇼팽 탄생 200주년 기념 연주회, 2012년 드뷔시 탄생 150주년 기념 연주회, 2013년 브람스 서거 180주년 기념 연주회 등을 열었다. 전석 초대. 문의 062-530-0120. /김미은기자 mekim@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리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 1899-0240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